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08년 11월 28일(금)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학술대회 연다.

-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33편의 논문발표
- 여성의 일자리 특성과 가족의 구조·변화실태 파악에 도움될 듯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주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배포 날짜 : 2008년 11월 28일(금)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info@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오는 12월 4일(목)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여성가족패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1회 여성가족패널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08년 12월 4일(목) 09:30 - 18:00
- 장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후원 : 한국사회학회, 한국여성학회, 한국인구학회, 노동경제학회, 가정관리학회, 한국가족학회
- 발표논문 : 11주제 33편 논문발표 (대학원생 세션1개 포함)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 제1회 여성가족패널학술대회 개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오는 12월 4일(목)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여성가족패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에게 여성가족패널자료를 제공하고, 그 연구 성과물을 중심으로 관련 학계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11주제 33편 논문이 발표(대학원생 세션 1개 포함)될 예정이다.

○ 본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 논문들이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 화두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제고, 저출산, 고령화, 보육, 일-가정 양립, 취약계층여성 및 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친화 사회환경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여성 및 가족정책 수립의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이날 학술대회는, 관련 학계 및 정치인, 정부 부처 담당자, 언론 및 여성단체 등에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 여성가족패널조사로 여성가족정책자료 구축 기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여성의 생활세계와 가족의 구조 및 변화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패널조사인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현재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표본 9,000가구, 만 19세~64세 여성 10,000명을 대상으로 1차 본 조사를 완료('07년)한 상태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위 변화와 가족생활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가족구조, 가족과 관련한 가치의 변화를 횡단면뿐만 아니라 종단면적으로도 추적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구축 및 분석을 통해서 '여성경제활동촉진정책',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보육정책', '일·가정 양립정책', '취약계층 여성 및 가족지원정책' 등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별첨 1. 주요 발표 논문의 내용
별첨 2. 행사일정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별첨 1. 주요 발표 논문의 내용

일하는 엄마의 출산 의향은 근무여건 만족도에 좌우, 남아선호 사상 등 전통적 가치관도 한 몫

❑ 제 2주제 “저출산”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김동식 박사(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표본 중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30세에서 44세 사이의 중년 취업모 1098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추가 출산 의향 유무를 분석한 결과, 여러 요인들 중에서 그들의 근로조건 만족도(임금, 고용안정성, 직무내용,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 이외에 남편과의 관계,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 등도 중년 여성 취업모의 추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자의 학력, 연령, 직업, 가구의 경제적 지위, 등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면 남편과의 관계나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결국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추가 출산 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김동식 박사는 현재 딸만 있는 경우가 다른 모든 조건을 고려한 후에도 여전히 추가 출산 의향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밝혀졌음을 지적하면서, 아직까지도 중년 취업모의 출산 의향은 전통적 남아선호 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여성의 고등교육 투자 수익률 높다.
고학력 여성의 증가는 높은 투자수익률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

❑ 제8주제 “교육과 인적자원”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백일우 교수팀은 ‘여성가족패널조사’ 표본 중에서 여성 임금근로자 1999명을 대상으로 시간당 임금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가 아닌 응답자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체계적 차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여타의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기대임금이 높고 인문사회계열이나 이공계열보다 의약계열과 사범계열 전공자의 기대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교육년수가 1년 증가함에 따라 기대임금은 평균 3.9% 증가하며, 고졸자와 비교했을 때 인문계열 대학 졸업자는 45.1%, 사회계열 졸업자는 37.5%, 이공계열 졸업자는 46%의 임금 프리미엄을 누리는데 그친 반면 의약계열 졸업자는 66%, 사범계열 졸업자는 64.9%의 임금 프리미엄을 누린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여성의 교육투자에 대한 높은 수익률은 개별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유인을 강화시키며, 대학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고등 교육 진학열, 특히 의약계와 사범계에 집중된 진학열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여성은 비정규 근로자로 남기 원하는가?
과거 비정규 일자리 경험이 없는 여성이 비정규 근로자로 남기 원할 가능성 높아.

❑ 제 3주제 “여성과 일”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이택면 박사팀(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 비정규 근로자 중에서 계속 비정규 근로자로 남아있기를 희망하는 사람의 비중이 55.8%에 달하는 사실에 주목하여, 무엇이 여성 비정규 근로자로 하여금 비정규 근로자로 남기를 원하도록 만드는지를 분석했다.

❑ 연구진에 따르면 여성 비정규 근로자의 개인특성, 가구특성, 일자리 특성 등이 모두 같을 경우 그들의 과거 일자리 경험이 어떠했느냐가 향후 비정규 근로자로 남기 원할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 과거에 일자리 경험이 없는(따라서 현 비정규 일자리가 첫 직장인)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과거 직장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비정규 근로자로 남고자 할 가능성이 더 낮았으며, 과거 직장 경험이 있는 여성들 중에는 현재와 같은 비정규 일자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비정규 근로자로 남고자 할 확률이 더 낮았다.

❑ 이는 과거에 일자리 경험이 없는 여성이 비정규 근로자로 계속 남고 싶어 할 확률이 높고, 일자리 경험이 있는 여성들 중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험이 없는 여성이 비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정규 근로자로 남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서,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과거에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일수록 비정규 일자리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별첨 2. 행사일정

<행사일정>

구 분	세 부 내 용
09:30 - 10:00	등 록
10:00 - 10:20	사 회 : 장혜경 기획조정본부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회사 : 김태현 원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축 사 : 이인식 차관(여성부) 박숙자 가족정책관(보건복지가족부)
10:20 - 10:40	"여성가족패널조사 개관" - 박수미 연구위원(여성가족패널조사 과제책임자)
10:50-12:20	1) 일-가족 양립 2) 저출산 3) 여성과 일 4) 결혼만족도
13:30 -15:30	5) 고령화, 빈곤 6) 가족해체 7) 가족(Ⅰ): 부부관계, 네트워크 8) 교육과 인적자원
15:40 -17:30	9) 자녀교육 10) 가족(Ⅱ): 가치, 생애주기 11) 대학원생 발표
18:00	폐 회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